임대사업자 7625명… 1년만에 절반 늘어

신규 등록 꾸준히 증가할 전망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수가 1년 만에 50% 이상 늘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625명으로 전년 동월(5032명) 대비 51.5%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늘어 누계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5월엔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다. 강서구는 162명, 마포구는 162명, 영등포구에선 133명이 등록했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84.3%로 전월(69.5%) 대비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8900채로, 전월 증가분(1만5689채)보다 20.5%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등록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 채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만5934채를 차지해 전월 1만904채에 비해 46%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만345채)에서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은평구(902채), 중구(745채), 노원구(677채) 순이었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난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기보, 보증연계투자 2배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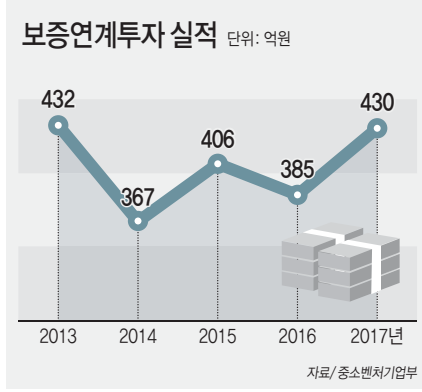
스타트업·中企 자금활로 뚫릴 듯
후속 민간투자 이끄는 마중물 역할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두 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늘리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말 국회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올해 10월 안에 끝낼 계획이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이다.



위험이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이 대상으로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 40여 곳에 매년 4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실적은 2015년 406억원, 2016년 385억원, 2017년 430억원 등이다.

특히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까지 226개 기업에 대해 총 2556억원의 보증연계투자가 이뤄졌지만 민간의 후속투자는 총 5809억원(99개 기업)으로 2.3배 가량 많은 금액이 유치됐다.

그럼에도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보 기본재산(1조8381억원)의 10% 수준에 근접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 수준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신규투자가 추가로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농촌진흥청, 우리쌀 소비 증진 '식미평가회'

전북 혁신도시 중고생 초청 시식회
고품질 '신동진' 품종 밥맛 좋은 평

농촌진흥청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쌀 시식회가 좋은 호응을 얻어 학생들에게 우리 쌀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일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북 혁신도시 내 중고등학생을 초청해 모두 7차례의 식미평가회를 열었다.

평가회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식습관을 파악해 쌀 섭취를 통한 신체 발육을 돕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온빛중학교와 양현고등학교 학생 총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미평가회는 시중의 혼합 쌀로 지은 밥을 기준으로, 전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고품질 쌀 '신동진' 품종과 '수광' 품종으로 각각 단일 품종 밥을 지어 밥맛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동진'은 밥맛(72%)에서, '수광'은 씹힘성(64%)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시중 혼합 쌀이 좋다는 응답은 없었다.

지난 4월 농촌진흥청이 전주 은빛중학교에서 진행한 식미평가회 모습. /농촌진흥청

참여 학생들은 '고품질 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평소에 먹던 밥과 달라 차이를 확연히 느꼈다', '밥이 이렇게 맛있다면 평소에도 잘 먹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습관을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7명이 아침밥을 먹는다고 답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 학생은 ▲시간이 없어서(59%) ▲밥맛이 없어서(29%) ▲체중 감량을 위해(4%)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68%)'는 응답이 높은 점에서 미뤄볼 때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따라준다면 아침밥 먹는 학생의 비율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식미평가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밥맛을 아는 계기가 됐으며 고품질 단일 품종 쌀의 유통이 쌀 소비 확대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점호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장은 "어려서부터 쌀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은 물론, 어른이 돼도 밥맛 좋은 쌀을 찾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쌀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에서 개발한 '신동진' 품종은 일반 쌀에 비해 쌀알이 1.3배 크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수광' 품종 역시 밥맛이 좋고 병해에 강하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A형 구제역, 해외서 국내 유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적·물적요인 통한 바이러스 전파

올해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2건은 A형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가 나왔다.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 돼지(2013년) 분리주와 95.7%, 태국 소(2015년) 분리주와 95.6%, 미얀마 소(2015년) 분리3주와 95.6%, 러시아 소(2013년) 분리주와 95.4% 상동성을 보여 특정한 국가와의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

또한 2017년 2월 국내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전자 분석결과 이번 김포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난해 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특정부위에서 유전자 70개가 소실되는 등 전체유전자 분석결과 95.6%로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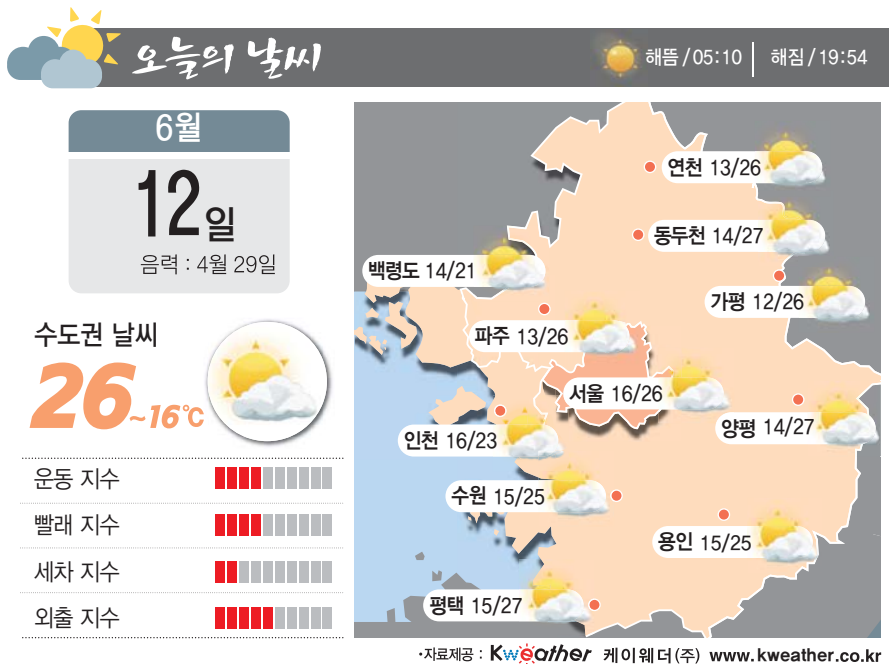
또한 역학조사결과, 국내 유입이후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분뇨·가축운반 차량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석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은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A형이 발생해 초반 전국 확산이 우려됐지만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협력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된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역본부는 올해 동절기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지에 A형 백신 추가, 백신 비축물량 확대,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 이달 중 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일제접종, 방역 취약농가 점검,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국경검역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한국전력공사

대학생 서포터즈 6기 모집

내달부터 10월까지 활동… 123명 선발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생 서포터즈 6기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전국 각지에서 ▲전력서비스 대국민 홍보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굴 ▲봉사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한전은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에게 8월 해외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한전 신입사원 채용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전력서비스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1일부터 28일까지 3인 1팀으로 팀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개인 신청을 불가능하며, 총 123명이 선발된다.

/박찬길 기자 cgr@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끌 28개社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끌 사회적 기업 28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 28곳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된 기업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4월 신청 기업 총 71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을 벌일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사회주택, 공공임대 상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건축·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녹색친구'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등 사회적 주택의 기획·개발 및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소형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입주민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더함'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시공사와 자산관리회사, 건축설계회사가 연합체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형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숨'은 문화를 통해 지역 고유 특성과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채신화 기자